

## 추 모 사

**원담당 진성 대중사시여!**

**산하대지에 봄기운이 서리고  
만물이 소생하려는 지금, 허공은  
말이 없고, 덕숭산 빛은 더욱  
푸르기만 한데 스님께서서는 지금  
어느 곳에 계십니까?**

**스님께서 입적하신지도 어언 3년  
성상이 지났건만, 덕숭산 천진불  
이셨던 그 얼굴, 그 미소는 우리들의**

**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  
합니다.**

**스님의 빈자리가 새삼 크고  
무겁기만 해 그리움과 간절함에  
사무치는 오늘 소납은 삼가 스님  
영전에 향 한자루 사루어 분향삼배  
올리며 고하나이다!**

**돌이켜보면 대중사께서는 일곱 살  
어린 나이로 덕숭산에 동진출가  
하시어 당대의 선지식이신 만공  
스님을 10여년간 일심으로 시봉  
하셨습니다.**

**그리고 열일곱의 나이에 견성하시어  
경허, 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숭선맥을  
여법하고 당당하게 이으셨습니다.**

**그 후 제방을 유력하면서 선지식을  
참방하여 묻고 체득하시니, 이는  
이미 물을 건너가 근원을 탐색하고  
꽃과 열매를 따서 뽕개어 마침내  
그 속맛은 씹어 당신의 것으로  
삼으셨다 하겠습니다.**

**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하시어  
총림의 기초를 닦았으며, 1983년**

**덕숭총림을 설치하고 한국 근세  
선불교의 중심수행도량인 선지종찰  
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선풍진작에  
힘쓰셨습니다.**

**대중사님께서서는 그 존재 자체로  
한국 선불교의 상징이란 구심점  
이었고, 후학에게는 진리의 지남  
(指南)이자 영원한 사표라 하지  
않을 수 없습니다.**

**스님께서서 계심으로 하여 선맥은  
전함이 있었고, 수행납자에게는**

스승이 있을 수 있었으니, 비유하자면  
마치 큰 강과 우뚝 솟은 산악이  
그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,  
만물에 미치는 공적과 덕화가  
일일이 헤아려 두루 알 수 없는  
것과 같았습니다.

선가에 이르기를, “애써 돌을  
쫓아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만들  
필요가 없나니, 지나가는 나그네의  
입이 바로 비석이니라,” 하였듯이,  
저희 후학들은 스님의 높은 뜻을  
가슴에 새기며 용맹정진함으로써

**불조의 혜명을 잇고, 널리 중생을  
위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도록  
하겠습니다.**

**스님께서서도 본래 세우신 바 서원을  
잊지 마시고, 속히 사바세계로  
다시 오시어 크나큰 자비덕화로  
널리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 
바라마지 않으며, 추모사를 가름  
하고자 합니다.**

**불기2555년 3월 15일**

**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